

전북도, 우수중소기업인 8명 선정

고용창출 등 6개 분야 엄격 심사... 3대 1 경쟁률 기록 · 경영개선보조금 3천만원 지원 · 가산점 혜택 등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우수중소기업인 8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기업에는 인증판과 경영개선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년도 전북도 우수중소기업 수상자는 △고용창출 분야 (유)진테크 대표 진규식 △매출신장 분야 (주)퓨터 대표 김명자, 데립씨앤씨(주) 대표 김성욱 △지역발전공헌 분야 (주)정석케이칼 대표 김용현 △우수신제품개발 분야 (주)올릭스 대표 안종욱 △주식회사별로닉스 대표 김한준 △장수기업 분야 천일제지(주) 대표 이용제 △창업기업 분야 (주)엘티에스 대표 주현경 등 8명이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유)진테크는 30% 고용 증가, (주)퓨터는 52% 매출 증가, 데립씨앤씨(주)는 18% 매출 증가, (주)정석케이칼은 100건 이상의 기부·봉사활동이 돋보였다.

(주)올릭스는 광반도체 관련 60건 이상 지식재산권 확보, 주식회사별로닉스는 유산권 등 관련 30건 이상 지식재산권 확보, 천일제지(주)는 도내 36년 경영을 통한 섬유산업 발전 기여, (주)엘티에스는 2017년 창업 후 꾸준한 제



지난달 30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열린 제21회 전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식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우수중소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품 개발 등 뛰어난 기업 경영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는 26개 기업이 신청해 약 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류평가, 현장평가와 지난 6월 18일 전북도 중소기업 지원기관협의회 최종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 기업에는 경영개선보조금 외에도 도의 경영안정자금이 최대 5억원

(일반기업 3억 원)까지 상향 지원된다. 이차보전 최대 3%(일반기업 2%),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가점도 부여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우수중소기업인 선정은 지난 2008년도 제1회를 시작으로 2023년도 제21회까지 총 113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공해 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등을 적극 지원할뿐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어 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미래세대 양성에 도움되길”

국민연금,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1억 5천만원 전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달 30일 '푸른등대 국민연금 기부장학금 기탁식'에서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에 장학금 1억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학금은 취약계층 국민연금 수급자 자녀 등 대학생 총 100명에게 1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선발 조건과 신청 방법은 7월 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매년 '희망있는 장학지원 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가정의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86명에게 약 15억 7,000만원을 전달했다. 공단은 하반기에도 중·고등학생 120명에게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단은 국민연금 나눔교실,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등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꾸준히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11월에는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



지난달 30일 열린 '푸른등대 국민연금 기부장학금 기탁식' 사진 왼쪽부터 배병근 한국장학재단 이사, 국민연금공단 이여규 복지이사, 정용건 나눔재단 이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여규 복지이사는 "이번 장학지원 사업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짚어질 미래세대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실천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농어촌공 이병호 사장, 우기철 집중호우 대비 현장점검 나서

저수지 점검 · 사전방류 · 농경지 침수예방 위한 배수장가동 등 대응 철저 강조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이 지난달 30일 우기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정읍지사 신성저수지(정읍시 신월동)와 용두배수장(덕천면)을 찾아 비상대응체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이병호 사장은 저수율 80% 이상 저수지는 취수시설, 비상수문을 활용 사전방류를 실시하고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장 가동 및 배수문 개방 등 직원 모두가 경각심을 높이고 철저한 사전대비를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과 현장조끼, 구명조끼, 헬멧 등을 착용하여 야간 시설물 점검 또는 배수문 조작시 직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이장문 전북본부장은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중심 관리를 강화하고 상습침수지역 등 취약지구는 더 세심히 점검하고 신속 대응으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올 여름 엘니뇨 발달로 인한 이상기후로 많은 비와 강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이 지난달 30일 우기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정읍지사 신성저수지(정읍시 신월동)와 용두배수장(덕천면)을 찾아 비상대응체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한 태풍의 발생 가능성이 전망됨에 따라 우기철 대비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병호 사장은 지난달 22일 본사 임원 및 부서장, 지방부서는 본부장과 사업단장을 영상회의로 소집하여

긴급안전대책회의를 실시해 상습 침수 지역 현황과 지역별 비상대책 매뉴얼을 점검하는 등 장비철 재난대비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옥기기자

북전주농협, 영농철 맞아 반월동서 농촌일손돕기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과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김대호) 임직원들은 영농철을 맞아 지난달 30일 전주시 반월동 포도농가에서 일손돕기를 펼쳤다.

농협은 범농협 차원에서 농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영농인력 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일손돕기는 20여명의 농협 임직원이 참여해 2,000여평의 포도밭에서 포도 수확기와 주변환경 정화작업을 도왔다.



범농협 임직원 농촌일손돕기



LX고객센터, 명칭 변경 · 현판식 개최

AI 기반 상담 전용 시스템 도입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가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진화한다.

LX공사는 지난달 30일 전주 본사에서 고객 상담을 접수받는 바로채터콜센터를 'LX고객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현판식을 갖고 지능형 콜센터로 도약한다고 밝혔다.

LX고객센터는 보이는 ARS를 도입해 고객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AI 기반 상담 전용 시스템으로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비스 응대를 향상, 표준화된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품질 관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AI 기반 콜봇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LX고객센터는 국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연계된 도면 기반 상담을 통해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상담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KS-CQI(콜센터 품질지수) 우수기관'으로도 인증 받았다.

LX공사 김정렬 사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짧고 간결하게 명칭을 변경했다"면서 "명칭은 간단해져도 업무영역은 늘어나는 만큼 공사를 대표하는 대국민 서비스 기관이 돼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